

6.2 지방자치선거 평가 -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를 중심으로

금홍섭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집행위원장

1. 6.2지방선거의 의미

①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 및 정권심판

- 세종시, 4대강사업,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국가적 의제 산적 => 결국 정권심판 성격

② 지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

-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, 수도권규제 전면 완화 등 새로운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있고
- 특히,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은 공무원들 월급을 못줄만큼 악화,
 - + 지방공기업 2년사이 빚 17배 증가
 - +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면 대전시를 비롯 5개구청, 교육청 공히 정상적인 재정운영 불가능
-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도시 백지화로 혁신도시마저 위기에 봉착
- 지방분권, 분산,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
- 행정구역개편 논란으로 지방자치 후퇴
-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로 지방자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음
 - + 이런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방정치권력을 만드는 유일한 기회

③ 대전광역시 의회의 장기파행을 겪은것처럼 무너져가는 지방의회를 바로세우는 기회

④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는 잘못된 지방자치를 바로세우는 기회

2. 6.2지방선거 결과

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

- 민주주의 후퇴, 세종시 수정, 4대강사업 강행, 각종 감세정책 등 위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
- MB집권 2년동안 이성적, 감성적 거부감 형성
 - + 이성적 거부감 / 4대강 사업, 세종시 수정, 미디어법 날치기, 천안함 사태 등
 - + 감성적 거부감 / 미네르바, PD수첩, 김재동, 정연주, 윤도현, 광우병, 특권층 편향정책, 천안함 유엔비어 단속, 북풍활용, 광장폐쇄, 노무현 서거 등
- => 2년여간 중첩되고 축적되면서 6.2지방선거에서 MB심판으로 이어짐
- 야당연합 성공, 높은 투표율, 북풍역풍이 3,40대를 움직임
- 한나라당 지방권력이 전면 교체되는 선거결과로 이어짐

② 충청지역 6.2지방선거 결과 특징 7가지 키워드

- 충청권도 한나라당 참패, 민주당 약진, 선진당 채면치레
- 첫째, **지역주의 희석화**
 - + 물론, 대전의 경우 시장, 구청장, 시의원 등 다수를 싹쓸이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
 - + 예전의 지역주의에 기댄 바람은 분명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
- 둘째 **인물중심**
 - + 야당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한나라당 소속이라도 인물중심으로 선택
- 셋째, **정책선거 가능성**
 - + 중앙의제 / 4대강, 무상급식, 세종시 등
 - + 지역의제 / 도시철도, 원도심활성화 등
- 넷째, **세종시 학습효과**
 - + 2003년도부터 듣고, 배우고 실천하면서 채득한 세종시 학습효과
 - + 세종시 학습효과는 북풍도 막고,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가장큰 영향력을 미침
- 다섯째, **북풍**
 - + 물론, 현명한 유권자들은 정략적으로 활용된 북풍을 역풍으로 만들었지만
 - + 선거막판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줬다고 봄
- 여섯째, **색깔있는 젊은 리더에 대한 기대 및 출현**
 - +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, 허태정 유성구청장 당선자 등
- 일곱째, **젊은 층 투표참여 확대**
 - + MB정권에 대한 감성적 거부감이 결국 20대 투표참여 확대로 나타남

③ 갈등과 증오의 정치 확인

- 선거과정의 전현직 시장이 주도하는 과열혼탁선거
-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
- 공직사회 혼란 및 주요시책 변화에 따른 시민들 혼란
- 이런 우려 해소해줄 수 있는 당선자 리더쉽 절실, 토론과 화합의 정치력 필요

3.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활동 평가

1) 조직개요 및 주요활동 경과

①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결성

- 개별단체 참여 현황 / 대전YMCA,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대전문화연대, 대전여민회,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,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, 대전충남녹색연합,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,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,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, 대전충남생명의숲, 대전환경운동연합(12개 단체)

- 네트워크 조직 현황 / 2010대전여성유권자희망연대, 6.2지방선거모니터단,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,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위한대전운동본부, 대전시립병원설립시민운동본부(5개 조직)

② 활동일지

- 3/24 전국지방자치선거네트워크 결성모임
- 4/ 1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준비모임
- 5 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 결성기자회견
- 6 예수살리기 금강 생명평화 기도회
- 7 금강정비사업 현장감시활동
- 8~14 금강 사진전 개막식, 갤러리아 타임월드
- 12 유권자희망연대 준비모임
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 회의
- 15 유권자희망연대 발족 기자회견
- 16 대전MBC 선거관련 정책자문위원회 참석
대전KBS 선거관련 정책자문위원회 참석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대전시의원 공천관련 규탄 논평
노무현 추모문화제(전국투어)-금강사진전
생명평화 미사 준비회의
- 19 4대강 중단을 위한 생명평화미사(공주 곰나루)
- 20 금강정비사업 현장감시활동 및 금남보 예정지 오니추정 흙채취
- 22 금강선원개원
세종시 수정중단촉구 기자회견(충남도청)
- 23 대전MBC 선거 자문위원회 참석
4대강환경연합특별위원회, 4대강별 환경연합 집종의 날 행사 결의
생명평화 미사 평가 및 오찬
- 25 대전MBC 후보초청토론 질문지 제공
- 26 무상급식 추진 토론회
지방자치선거 과제에 대한 대전MBC토론회 참석
스폰서검사 규탄 기자회견(여성유권자연대)
대전여성유권자연대 출범 기자회견
상황실 회의 및 금강선원 평가회의
- 27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국회기초의회 폐지 규탄 논평
- 28 중도일보-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캠페인 '지방자치 위기진단 토론회'
금강정비사업 사후환경평가(10공구)
금강을 살리는 음유기도회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시장후보자 도시철도 2,3호선 건설 논평
- 29 유권자희망연대(9시, 환경연합)
- 5/1 지방자치평가 중도일보 칼럼 게시
마곡사 신록축제 금강사진전시회 개최
- 3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충남도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
- 4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CMB후보초청토론회 기획모임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중도일보 공동기획 칼럼 게재
- 5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중도일보 공동기획 칼럼 게재
- 6 금강정비사업 소송대응 워크숍
- 7 유권자희망연대 집행위(9시, 환경연합)
- 8 CBS 시장후보초청토론회 패널참석
- 9 대학생유권자희망연대 간담회

- 10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후보초청토론회 관련 준비모임
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-중도일보 투표참여칼럼 게재
- 11 보건의료정책질의결과 기자회견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대학생 부재자투표소 설치 촉구 논평
금강사진전(공주대 백제교육문화회관)
- 12 4대강대전시홍보자문단 규탄 기자회견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CMB 후보초청토론회 준비모임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집행위원회
- 13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환경공약 제안
- 14 CMB후보초청토론 준비모임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공공병원대책위 후보자 질의 기자회견
- 17 사무처회의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무상급식광역시장,교육감후보 협약식
금강을지키는사람들 결성기자회견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동구청장후보 CMB토론회
시장후보,교육감후보 메니페스트협약(이상덕 대표님 외 참석)
- 18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중구청장후보 CMB토론회
- 19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서구청장후보 CMB토론회
- 20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유성구청후보 CMB토론회
금강소송대응 홀동(시민환경교육센터)
- 24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보건의료 정책제안 기자회견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대덕구청장후보 CMB토론회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투표참여호소 기자회견 및 캠페인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과열혼탁선거 규탄 논평
- 25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대전시교육감후보 CMB토론회(1시,금홍섭)
대학생 유권자연대 투표참여캠페인(한남대)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선관위 투표참여캠페인 방혜규탄 논평
- 26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도시재생 정책 제안 기자회견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 대전시장후보 CMB토론회
대학생유권자연대 투표참여캠페인(충남대)
- 27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투표참여캠페인(충남대)
- 28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투표참여호소 캠페인(으능정이 거리)
- 29 금강 집중의 날 행사(공산성 내 금강선원)
- 6/1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투표참여호소문 발표
- 2 6.2지방자치선거일
CMB 개표방송
- 3 TJB지방선거 평가토론회
KBS 대전광역시장 당선자 초청 토론회
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당선자에게 바란다 논평발표
- 4 중도일보 유권자희망연대 공동기획 선거평가 좌담회(중도일보)
- 7 6.2지방자치선거 평가 토론회(풀뿌리사람들)

2) 주요활동내용

① 의제자문 활동 / 대전KBS, 대전MBC, 대전CBS 지방자치선거 관련 의제자문 활동

② 후보초청 토론회 공동기획 추진

- 2010대전유권자연대,대전일보,CBS대전방송,디트뉴스,CMB대전방송 공동 후보초청토론회 기획

- 대전시장, 교육감, 5개구청장 등 총 7회 개최

- 의제발굴 위한 3차례 준비모임 개최 등

③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중도일보 공동 선거 보도기획

- 6.2지방선거 의미, 민선5기 과제와 전망 등 좌담회 3회 개최

- 유권자 칼럼단 구성 / 총 12명으로 12회에 걸쳐서 칼럼 게재

- 주요이슈 점검 등

④ 각계각층이 제안하는 릴레이 공약제안 / 환경공약, 도시재생, 보건의료 등

⑤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/ 대학생유권자연대와 공동기획 추진

- 대학생 투표참여 캠페인 / 충남대 2회, 한남대 1회

-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촉구 논평

- 투표참여호소 기자회견 및 투표참여 캠페인 2회 개최

⑥ 각종 선거이슈에 대한 개입

- 도시철도 2호선 추진, 도시재생 논란, 과열혼탁선거 문제제기, 세종시 등

- 전현직 시장간의 과열혼탁선거 여론화

⑦ 좋은후보 나쁜후보 변별 방법 제시

⑧ 연대활동 / 친환경무상급식 도입, 4대강사업 저지, 행정도시 원안추진 대책활동 등

-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주간 행사

⑨ 4+1 선거연합(민주당, 민주노동당, 창조한국당, 국민참여당) 참여

3) 4+1 선거연합 평가

① 선거연합 결과

- 대전지역 4야당 연합 후보 결과

- + 대전시장(1명), 구청장(5명), 시의원(18명), 구의원(1명) 등 총 25명의 4야당 연합후보 합의

- + 구청장(1명)과 시의원(4명) 등 민주당 소속 5명만 당선됨

- 수도권뿐만 아니라, 경남 등 다른지역의 성과(142명 당선)에 비교하면 아쉬운 결과

② 지역 진보개혁정치의 발전 측면

-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시민후보 추대 못함

- + 시민사회주도 제정파 대연합의 기회 상실

- + 진보개혁진영의 능동적 주체화 실패

- 반보수연합이라는 지역특성 고려 미흡

- + 호남의 반민주당과 같은 충청의 반보수로의 확장 필요

- 시민운동 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직적 합의 실패

- + 비공식적인 참여가 아니라, 지역 시민운동 진영의 내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

- + 선배운동가 또는 개인중심의 논의가 아닌,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아래로부터의 합의가 우선
- 생활정치 의제의 일상화 및 급진화 취약
 - + 생활정치에 대한 이해 및 준비 부족(선거때만 생활정치)
 - + 불만과 변화를 갈망하는 집단의 욕구 반영 미흡
 - + 불만집단의 투표참여를 불러올 대안 마련 소홀(시내버스 종사자, 중소기업인 등)
 - + 단일후보의 형식에 더한 정책대안 및 변별력을 통한 폭발 없음
 - + 지역사회 조사 및 의제에 대한 분석 부재
 - + 진보진영만의 차별화된 지역사회 개조 및 지역비전에 대한 구상 및 준비 취약
- 선거연합 과정의 문제점
 - + 시민참여형 연합과정 부재
 - + 유권자운동과 결합된 공개연합 추진 안됨(고양시의 사례)
 - + 연합과정과 선거운동과정의 분리 초래됨
- 전체적으로 유권자조직과 행동의 기획 능력의 한계
 - + 조직된 시민을 만드는 과정으로 선거 인식해야
 - + 유권자의 주체화와 조직화 없는 선거는 안됨

③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전략의 측면

- 지역없는 지방선거연합의 문제점
 - + 지역별 특성, 차이를 선거연합 과정에 반영하지 못함
 - + 지역의 참여없는 서울 중심 연합 추진
 - + 영향력, 파급력의 협소화
- 정책중심 유권자중심 연합 동력 취약
 - + 상층원로와 상층의 협의로 제한
 - + 시민사회운동의 영향력 저하도 한 몫
- 반 MB중심 연합
 - + 반 보수로 확장성 미흡
 - + 민주당 대표 주도권 강화 / 민주당 쇄신없는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선거연합 활용 안됨
 - + 진보개혁진영 정당 재편성 및 집권전략 필요성 확인

④ 지역시민사회의 발전 측면

- 유권자조직 기반 정치 참여 기획 부재
 - + 따라서, 의제와 담론의 주도, 유권자 조직화가 또하나의 대안
 - + 아래로부터의 연합을 통해 유권자를 조직함
- 유권자참여 운동 추진 동력 상실

- + 조직력 취약, 의제설정 능력 취약
- 시민운동 진영의 애매모호한 4당연합 참여
 - + 비공식 후보단일화 과정 참여
 - + 의도하지않게 박정현 민주당 진입으로 실질 연합공표
- 시민사회운동 진영 지방정치권력(지방정부) 쇄신 전략 취약
- 지역배제 4+5비판 소홀
 - + 지역없는 선거연합에 대한 견제 노력 취약
 - + 시민사회내 지역운동의 주도력 약화 가능성

⑤ 총괄평가

- 선거연합과 혁신의 병행 추진 전략 절실
- 선거연합의 조건으로서 지역화 의제 확립 필요
- 정당, 시민사회에 덧붙여 핵심으로서 유권자 주체화 조직화, 전략구성 필요
- 변수의 문제도 있지만, 후보의 무능이 선거연합을 무능연합으로 비추게 함
- 선거후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본격논의 및 새로운 유권자조직화 준비 착수 즉시필요

4. 향후 과제와 전망

1) 향후 정국전망

① MB 국정운영 변화 가능성

- 6.2지방선거 참패이후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
 - + 4대강사업, 세종시 수정 등 국정운영 과제 난관에 부딪침
 - +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현 정국흐름이라면 완패할 가능성이 큼
- 그러나, 이명박 정부 기조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+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이 상실되었으며,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듯
 - +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은 관련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방권력과의 끊임없는 충돌 야기
- 결국, 이명박 정부는 결코 국정운영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
 - + 4대강, 세종시 등 깊은 고민을 하면서, 경제살리기를 기회로 야당을 압박하려 할 것임
- 결국, 이명박 정부 레임덕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임
-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권력의 추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, 국정운영의 누수현상 발생
- 이명박 정권은 레임덕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쓰면서 최악의 상황도 예상해야
 - + 행정구역 개편 등 개헌 시도 가능성
 - + 국가권력 기구를 동원한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 보임

② 선거연합의 한계와 과제

- 민주당이 자기 한계와 혁신의 동력을 회피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조
- 진보정당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적, 구조적, 내용적인 한계
- 그러나 민주당이 담지못하고 있는 계급,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며, 진보정당의 몫
- 민주당은 패권적 태도를 버리고, 진보정당은 더 넓게 헤게모니를 잡는 연합방식 고려
 - + 민주당은 구태정치, 낡은 정치리더십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
 - + 진보정당은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

③ 6.2지방선거 이후 선거연합 어떻게할 것인가?

- => 어떤형태의 야당의 재편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민주당의 자기혁신이 요구됨
- => 당분간은 단일화가 필요조건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일화 명분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반대
- => 합당하느냐 또는 범진보개혁 세력이 철학적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면서 경쟁하는 구도로 갈 것이냐
- 방법 1 / 단일 정당으로 통합
 - + 연합이 혁신가치와 맞물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함
 - + 단일 정당속에 당분간 사민주의부터 자유주의까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경쟁하자는 제안
- 방법 2 / 선거중심의 연합,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가질수 있는 현선거중심의 연합
- 방법 3 / 연정체제, 단기적으로 총선, 대선국면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정체제가 적절
- 방법 4 / 기타

④ 6.2지방선거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평가

- 이번 6.2지방선거는 보수,진보 모두 정치와 시민사회의 경계가 무너진 선거운동을 한 것
- 선거연합을 매개로 정당을 주체로 연합을 매개하거나 조정, 촉진하는 역할을 했음
- 그러나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선거연합은 자기조직력 또는 힘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님
- 선거연합 이후에는 결국 유권자 참여운동 선택함
- 시민운동의 영향력의 정치, 의제담론으로는 선거참여운동 한계

2) 민선자치 15년 평가 및 민선 4기 평가

① 민선자치 15년 평가

-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
-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
- 제한된 주민참여
- MB집권 이후 지방위기 및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가속화
- 지방자치 제도문제 / 권한, 재정이양 빈곤, 자치입법권 및 인사권 제약

② 민선4기(박성호 대전광역 시장체제) 평가

- 긍정적인 평가
 - + 기업유치,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, 시내버스 노선개편
 - + 비경제가치 중심 시책 / 나무심기, 자전거, 생태하천, 무지개프로젝트 등
 - + 국비지원 확대, 보행환경 개선,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 성과
 - 부정적인 평가
 - +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, 로봇랜드 시범사업, 자기부상열차 등 국책시범사업 실패
 - + 본격적인 서남부권 1단계 개발, 무분별한 원도심 재개발 사업
 - + 시내버스 책임경영제, 도시철도 2호선 논란 / 수송효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부재
 - + 3천만그루 나무심기, 자전거타기 / 시민적 공감대 부족
 - + 반지방의 MB정부에 무기력 / 행정도시, 수도권규제완화, 지방재정위기
- => 전체적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박성호 대전시장의 리더쉽 문제 드러냄

③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평가

- 잇따른 파행 / 의장단선거, 연찬회, 학원교습시간문제, 해외연수 등
 - 최소한의 상황판단능력 부재
 - 최소한의 협상력, 지도력 등 리더쉽 부재
 - 전체적으로 자치의정 역량 부재 드러냄
- => 결국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인식 확산(잘한다. 11.8%에 불과, 09년 8월 15일 충청투데이)

3) 민선 5기 과제와 전망

① 4대 지방위기를 넘어서는 민선5기

- 신 중앙집권
-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악화
-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도시 백지화 및 혁신도시 위기
- 구의회 폐지, 행정구역개편 논란 / 지방자치 부정

② 민선자치 5기 및 제6대 지방의회 과제

- 행정도시 원안추진
 - +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비롯 지방정치권과 지역민들과 연대
- 전국적인 선거공약인 4대강사업 저지,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해 자치역량 발휘
-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아닌, 토론과 협력의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실현
- 신 토건 지방정부의 막개발(지하철2,3호선, 서남부권, 재개발 등) 지양
-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 해결
 - + 고용,교육,보육,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를 해소

- + 중추적첨단과학기술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지역경제정책 구상
-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 해소위한 대책 제시
-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권력간의 연대 강화
-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쇄신하고 주민참여제도 도입
- 부정부패방지 위한 부패방위원회 구성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
- 운송효율 위주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

5. 시민사회운동 향후 활동방향

- 범 지역 차원의 기구구성을 통해 4대강사업 및 세종시 수정 저지활동
- 시정 및 의정감시와 견제를 위한 대전연대 차원의 별도 기구 구성
- 정치운동에 대한 비전의 수립 및 시민사회 합의를 위한 논의시작